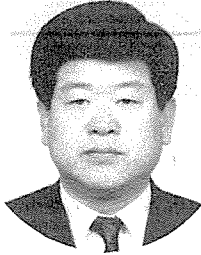


# 學會活動의 先進化



李 載 昌

高大교수 · 한국통계학회회장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렸다는 무역역조의 해결을 위한 많은 과제들중에서 과학기술의 후진성탈피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주도적인 것 같다. 기술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는 사양화된 기술등을 제공하여 싼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크게 견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려는 우리 수준의 나라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지리만큼 기술보호주의의 장벽을 높이며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는 우리의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과학기술발전의 주체는 누구인가? 대학과 연구소가 직접 나서야하고 정부와 산업체가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임에는 별 이의가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한 논란은 최근의 신문지상에서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대체마련에도 여러 가지 좋은 징후가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 잊혀져있는 또하나의 무형의 주체가 있다. 학자와 연구자가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자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학회가 바로 그것이다.

학회는 학문발전에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공동연구의 틀을 만드는 협력과 교류는 물론

연구방향의 정립, 연구결과의 발표와 토론, 학술지의 발간등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해야한다. 신랄하고도 객관적인 비평은 학술발표회가 갖는 기능이며 모든 논문은 이를 통해서만이 평가되고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무수한 학회가 설립되어 활동중에 있으나 문제는 거의 태반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에 있다. 학회의 발전과 활성화가 과학기술발전에 큰 공헌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학회는 먼저 스스로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정부와 기업도 이들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학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학회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학회의 명칭이 마치 대학에서의 강의제목과 같이 되어 있다. 심지어는 학회의 감투싸움에 밀리면 새로운 학회를 만든다는 심한 표현까지 있을 정도다. 이런 현상은 대학에서 학과가 너무나 세분화되어 서로 울타리 쌓기를 하고 몇몇 교수가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는 점차 학제화하여가는 학문의 추세를 역행하는 처사인 동시에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논문의 평가를 외면하는 일이다. 학회들은 서로 과

감하게 통합하여 영세성을 탈피하고 광범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와 학술재단의 연구비지원과 대학의 자체연구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연구비지원기관은 연구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학회는 늘어나고 유명무실하여 제대로 논문심사도 거치지 않은 학술지가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원래 학술지는 국내외의 모든 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히도록 각종 도서관등에 비치되어야 하는데 승진심사나 연구보고의 방편으로 일회적이고 폐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논문의 표절시비도 이러한 상황에서 생기게 된다. 학술논문의 평가는 이의 인용빈도에 비례하는데 인용되지 못하게 그들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의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대학별, 학과별 평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문제가 누차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이 있다. 국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2점,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1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대로 국내학술지가 우리 스스로에 의해 격하되고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부인하기도 어려운 아픔이다. 혹자는 학술의 사대주의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 어떤 학자중에는 자기의 논문 중 우수한것은 외국학술지에 기고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에 국내학술지에 게재하려 한다. 우리의 학술지를 외국의 학자가 자기논문을 발표하고 싶어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실은 학회들이 분야별로 자기가 속한 대학의 학과들의 평가를 먼저 능동적으로 했어야만 했다. 학문영역별 평가는 어차피 학회의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학회들이 국제적수준의 학문활동과 학술지의 국제수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는 학회에 속한 회원들의 자각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고 외부의

재정적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학회는 일반 기업의 경우와는 달라 선진국의 기술폐쇄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세계적인 학자들은 학회활동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않고 질 높은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한다. 일본의 東京이 국제학술의 중심지는 결코 아니지만 국제학술회의의 중심지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만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은 학회 활동을 지원하여 외국학자의 참여·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학술지들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노력은 대단하다. 우선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국제적으로 개방되고 학술회의 준비에도 세계적인 학자와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회의 노력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스포츠에 의한 국위선양에서 이미 체험한바 있다. 정부 및 기업의 집중적투자와 노력이 그 결실을 맺고 중국에는 올림픽의 유치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학회활동도 이러한 범 국가적 노력으로 학문의 선진화를 꾀해야 할 때가 왔다. 운동경기의 각 단체는 대기업들이 하나씩 맡아서 지원해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회, 특히 많은 기업이 외면하고 있는 기초분야의 학회는 스포츠단체에 투자한 몇 십분의 일이면 가능하다. 응용분야의 학회는 그런대로 산업체의 참여가 활발하고 지원도 인색하지는 않다. 기술발전의 근원이 되는 기초과학분야의 학회지원에는 너무나 인색한 느낌이다. 기업이 하지 못하는 기초분야의 연구는 대학과 연구소가 맡아야 하고 이들의 연구실체로 구성된 학회가 작성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며 이들의 학회활동을 뒷받침해 준다면 우리의 고급두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 학술회의, 학술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대학을 살리자는 운동이 일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선진화운동이 국가의 사활에 연류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요즘 학회도 자체의 반성에서 부터 시작하여 구각을 벗어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